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노동시장 상태 변화와 빈곤 동학 연구

남재량*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탈에 따른 충격은 임금의 연공성이 강할수록 더욱 커진다. 급속한 고령화에 더해 최근 조기퇴직 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주된 일자리 이탈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상태 변화를 추적 관찰한 결과, 주된 일자리 이탈과 더불어 취업자의 비율이 급감하고 비경활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나아가 주된 일자리 이탈 근로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는 크게 악화되었고 빈곤률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탈이 될 급격하게 이루어지거나 지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데, 이는 임금 연공성 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용어 : 주된 일자리, 일자리 이탈, 최저임금, 소득분배, 빈곤

1. 서론

생애에 걸쳐 가장 오랫동안 일하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의 소중함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소중한 정도는 개인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이연계약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이연성의 정도도 매우 크다. 이러한 연공임금제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제도가 가지는 경직성으로 인해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고속 성장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연공성이 강한 이연임금계약은 성실근로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이행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임금의 강한 연공성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령 근로자들의 주된 일자리 가치를 더욱 높이는 반면, 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중고령 근로자들에게서 주된 일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의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서 이미 노동시장에서 많은 중요한 변화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당연히 중고령 근로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이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먼저 주된 일자리 이탈을 전후하여 이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관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탈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탈 이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경제활동상태에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년간에 걸친 이탈자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분석한다. 이탈 전후 경제활동상태 추적 관찰을 통한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며, 나아가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이처럼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근로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를 이탈 전후에 걸쳐 분석함으로써, 가구원의 주된 일자리 이탈과 가구소득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된 일자리 이탈이 가구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구원의 주된 일자리 이탈은 가구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노인빈곤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상에서 주된 일자리 이탈 근로자와 이들의 추적 관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할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제3절은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이탈 전후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추적관찰하여 분석한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과 최저임금 미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4절은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 및 빈곤 전략 여부에 대해 동태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제5절은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고 이 연구를 마무리한다.

II. 자료(data)

우리나라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이다. 이 조사는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 조사는 매년 5월 만 55~7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부가조사¹⁾를 실시는데, 여기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직장)”에 대해 질문을 한다. 우리는 이를 생애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 또는 직장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주된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고령층 부가조사는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직장)’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들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이 부가조사는 그 일자리에서 근무기간, 지금도 근무하는지 여부, 그만 둘 당시 나이, 그만 둘 당시 근로형태, 업종, 직종, 그만 둔 주된 이유 등을 질문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동일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면, 우리는 이 조사의 경

1) 통상 이를 ‘고령(층) 부가조사’라고 부른다.

상조사와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특성과 이후 상태들에 대해 추적 관찰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인 식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개인이 아니라 특정 코호트(cohort)에 대해 추적하는 등과 같은 제한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의 지속적인 교체로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에 한계가 있다.

동일한 개인에 대한 장기 추적을 위해서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2021년에 24차 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23차 조사 자료까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조사는 동일한 개인과 가구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이므로, 추적관찰 및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KLIPS는 2015년 제18차 조사에서 장년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 50~74세를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하였던 일 가운데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으며, 그만 두었다면 그만 둔 당시의 사업체 특성과 일자리 특성, 월평균 임금 또는 소득, 정년 유무, 그만 둔 이유 등을 묻고 있다. 아울러 은퇴 및 은퇴 관련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다.

이러한 KLIPS의 2015년의 장년 부가조사 결과를 2015년의 경상조사 및 인접한 여러 해 동안의 자료들과 병합하여 분석하면,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하며 다양한 새로운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KLIPS의 2015년 장년 부가조사 자료 및 관련 자료들을 병합하여 사용하면, 2014년이나 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개인을 찾을 수 있고 이들의 주된 일자리 이탈 전과 후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5년의 KLIPS 장년 부가조사 자료는 본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본고는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여기에 다른 조사 차수의 KLIPS 경상조사 자료들을 결합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개인에 대한 조사 자료뿐만 아니라 가구에 대한 자료들을 결합하면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이의 시간에 걸친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5년에 실시한 장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근로자들을 식별한다. 이 부가조사 자료는 2015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였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2014년과 그 이전에 이탈한 경우들과 달리 2015년에 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는 1월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이탈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이 과연 2015년을 대표할 수 있는 지가 불확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과 2103년 그리고 2012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경우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연도만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성 문제를 줄일 수 있고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표본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만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Ⅲ.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 노동시장 상태 추적

1. 기존 연구

주지하다시피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들의 대규모 은퇴로 인해 최근 중고령층 노동시장은 격변의 와중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지 않은 분석결과를 현재의 노동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및 이로부터 이탈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기존연구들에 대한 고찰은 가급적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연구들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미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년 5월 55~79세를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직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므로 주된 일자리 및 이로부터 이탈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남재량(2019)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와 경상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특성을 분석하고 주된 일자리 계속 근무자와 이탈자의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특히 그는 55~64세를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경제활동상태를 동일 코호트에 대해 추적관찰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일자리 이탈자 전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된 일자리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재량(2019)은 주된 일자리 5년 이상 근속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지 1년 이하일 경우 해당 연령층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즉 고용률은 크게 감소하며, 실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율이 크게 증가함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노동시장 고용지표들은 주된 일자리 이탈 후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고 있음도 알아내었다.

반면 남재량(2020a)은 2015년에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장년 부가조사 및 경상조사 자료를 이웃한 여러 경상조사 자료들과 결합하여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근로소득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2014년에 주된 일자리를 이탈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는 주된 일자리 이탈과 함께 고용의 양적 지표들이 크게 악화되며 이러한 지표들은 시간이 4년 경과하더라도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찾아내었다. 주된 일자리 이탈자는 고용의 질에 있어서도 해당 연령층 전체의 경우에 비해 열악한 모습을 보였다.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이탈 후 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들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주된 일자리 이탈과 더불어 그리고 이후 한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남재량(2020b)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 변화 및 빈곤에 대한 동학(dynamics)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2014년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소득 10분위 가운데 하위 2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이 이탈 직전 10% 남짓한 수준에서 이탈과 더불어 20%를 넘었으며, 그 다음해에 25%를 넘고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 나아가 주된 일자리 이탈 가구들 가운데 빈곤에 처하게 되는 가구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구체적으로 주된 일자리 이탈가구의 이탈 이전 빈곤률은 경제전체 빈곤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탈 후 2년이 지나면 이탈가구의 빈곤률은 20%를 넘고 있다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뿐만 아니라 2013년과 2012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근로자들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분석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연구에 제시되고 있는 결과들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들이 도출되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존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주된 일자리 이탈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다 2012~2014년 이탈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할 경우 경기변동 등에 따른 특정 연도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고 표본을 보다 많이 확보하게 됨에 따라 추정에 따른 표준오차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의 변화

가. 경제활동상태

<표 1>은 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을 기준으로 이탈 2년 전과 이탈 6년 후까지 이탈자들을 추적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2012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추적하였고 2013년 및 2014년 이탈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및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였다. <표 1>에 제시한 결과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이탈 시점을 기준으로 일치시켜 정리한 것이다. [그림 1]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표 1>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2012~2014년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경제활동상태는 이탈과 더불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탈 직전까지 90%를 상회하던 취업자 비율이 이탈과 함께 60% 남짓한 수준으로 하락하며 이탈 1년 후에 이르면 23.9%에 불과하다.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취업자 비율은 회복세를 보이거나, 이탈 6년 후에도 취업자 비율은 5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머문다.

이탈자 집단의 비경황 비율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취업자 비율과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탈 1년 전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비경황 비율이 이탈과 더불어 35%를 넘고 있으며 이탈 1년 후 67.2%까지 상승한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경황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이탈 6년 후에도 50%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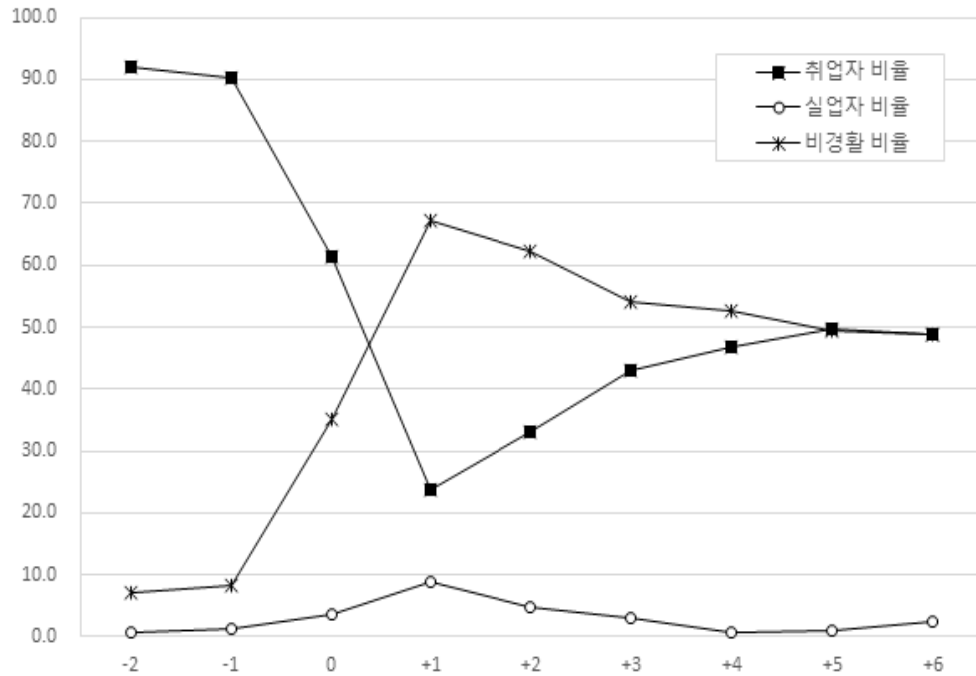
실업자 비율은 이탈 1년 전 1.4%에서 이탈과 함께 3.5%로 상승하며, 이탈 1년 후 8.9%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낮아져 이탈 4년 후이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진다.

<표 1> 경제활동상태

	이탈 2년전	이탈 1년전	이탈 시점	이탈 1년후	이탈 2년후	이탈 3년후	이탈 4년후	이탈 5년후	이탈 6년후
취업자 비율	92.0	90.4	61.3	23.9	33.0	43.1	46.7	49.6	48.9
실업자 비율	0.8	1.4	3.5	8.9	4.9	2.9	0.8	1.0	2.3
비경활 비율	7.2	8.2	35.2	67.2	62.1	54.0	52.5	49.3	4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 주된 일자리 이탈 이전 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가 반드시 취업상태인 것은 아님.

[그림 1] 경제활동상태



단, 주된 일자리 이탈 이전 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가 반드시 취업상태인 것은 아님.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 경제활동상태 추적 관찰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본고와 동일하게 KLIPS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2014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경우들만 대상으로 분석한 남재량(2020a)에서 하락하였던 취업자 비율은 이후 점차 회복되어 이탈 4년 후 40% 남짓한 정도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높아졌던 비경활 비율은 6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율은 이탈 4년 후부터 모두 50%에 근접하고 있고 이탈 5년 후부터 5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즉 2014년 이탈자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의 양적 고용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 종사상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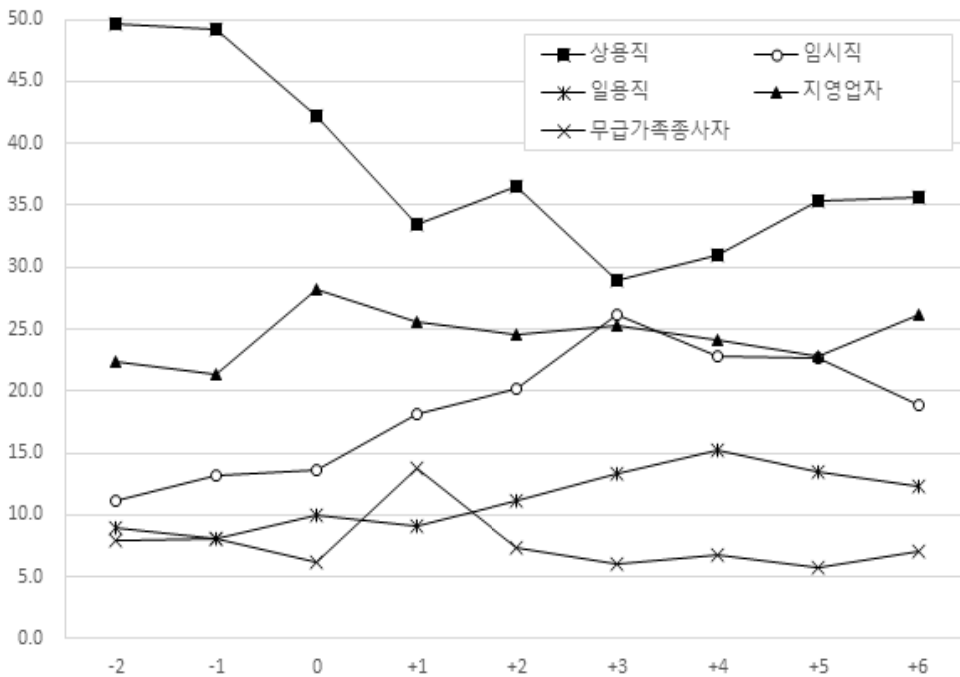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종사상의 지위로 살펴보기 위해 <표 2>를 제시하였다. [그림 2]는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주된 일자리 이탈 1년 전 50%에 육박하였던 상용직 종사자의 비율이 이탈과 더불어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탈 1년 후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탈 3년 후에 상용직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회복하고 있지만 이탈 5~6년 후에도 35% 수준에 그칠 뿐이다. 즉 종사상의 지위로 볼 때 주된 일자리 이탈은 고용의 질을 크게 악화시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회복되는 정도는 미약한 정도에 그친다.

<표 2> 종사상의 지위

(단위 : %)

	이탈 2년전	이탈 1년전	이탈 시점	이탈 1년후	이탈 2년후	이탈 3년후	이탈 4년후	이탈 5년후	이탈 6년후
상용직	49.7	49.2	42.2	33.5	36.5	29.0	31.0	35.4	35.6
임시직	11.1	13.2	13.6	18.1	20.3	26.2	22.8	22.6	18.9
일용직	8.9	8.1	9.9	9.1	11.2	13.4	15.3	13.5	12.3
지역업자	22.4	21.4	28.1	25.5	24.6	25.4	24.1	22.8	26.2
무급가족종사자	7.9	8.1	6.2	13.7	7.4	6.1	6.7	5.7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2] 종사상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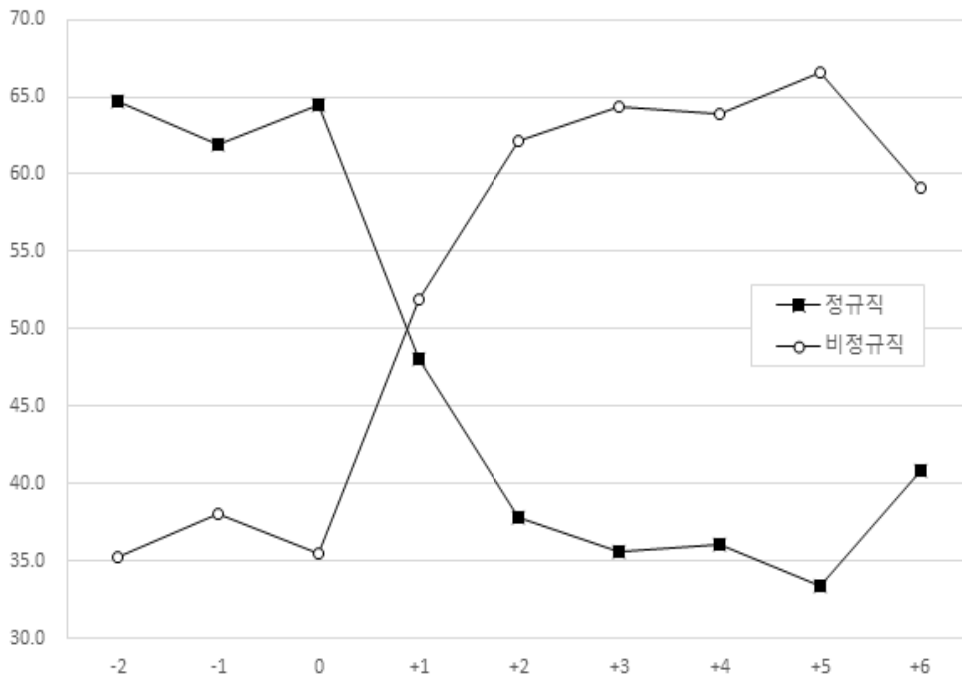
다. 근로형태

<표 3>은 고용의 질을 근로의 형태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은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정규직 비율은 주된 일자리 이탈 1년 후 급속히 낮아진다. 이탈 연도에도 65%에 육박하였던 정규직 비율이 이탈 1년 후 50% 아래로 떨어지며 이탈 5년 후 33%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6년이 지나면 40%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근로의 형태로 파악한 고용의 질은 이탈과 더불어 급속히 악화되었다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빠지며 이후 회복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

<표 3> 근로형태 비율

	이탈 2년전	이탈 1년전	이탈 시점	이탈 1년후	이탈 2년후	이탈 3년후	이탈 4년후	이탈 5년후	이탈 6년후
정규직	64.7	61.9	64.5	48.1	37.8	35.6	36.1	33.4	40.8
비정규직	35.3	38.1	35.5	51.9	62.2	64.4	63.9	66.6	5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3] 근로형태 비율



라.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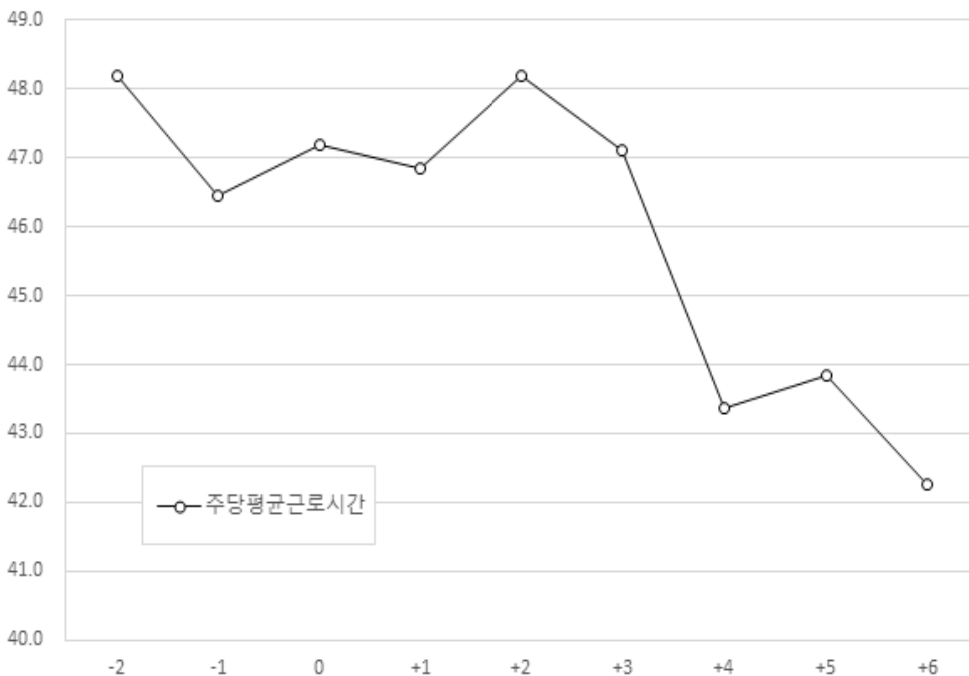
<표 4>와 [그림 4]는 이탈 당시 및 이를 전후한 시기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근로시간은 이탈 3년 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탈 6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탈 2년 후 근로시간은 48시간 수준으로 전 연도에 비해 1시간 이상 증가²⁾ 하지만 이탈 6년 후가 되면 42시간 남짓한 수준으로 하락하여 이 기간 동안 6시간 가량 큰 폭으로 줄어든다.

주된 일자리 이탈 전 근로시간 변화를 보면, 이탈 1년 전 근로시간이 이탈 2년 전에 비해 1.7 시간이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탈과 더불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이후 2년 동안 근로시간은 그리 큰 변화 없이 47시간을 중심으로 오르내린다. 그러다가 이탈 2년 후에 이르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1시간 이상 상승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표 4> 근로시간

	이탈 2년전	이탈 1년전	이탈 시점	이탈 1년후	이탈 2년후	이탈 3년후	이탈 4년후	이탈 5년후	이탈 6년후
주당 평균 근로시간	48.2	46.5	47.2	46.8	48.2	47.1	43.4	43.8	42.3

[그림 4] 주당 평균 근로시간



2) 정확히 1.4 시간 증가하고 있다.

2.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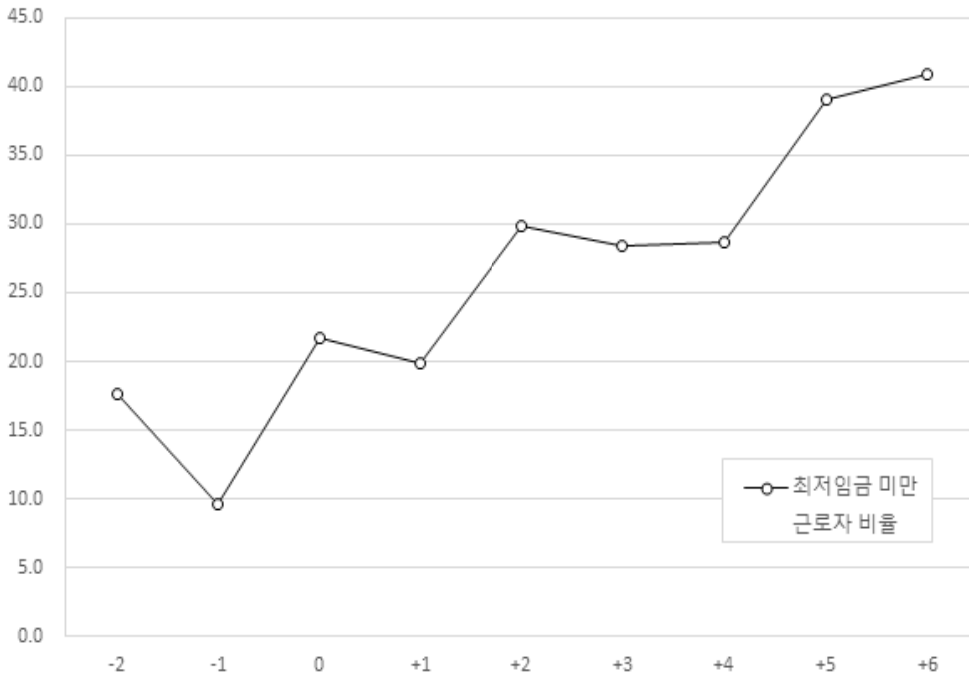
주된 일자리 이탈 직전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표 5>와 [그림 5]에서 보듯이 10%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이탈과 더불어 20%를 넘는 수준으로 두 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다. 이후 이탈자의 최저임금 미만률은 단기적인 오르내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이탈 6년 후 미만률은 40%를 넘게 된다.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하락이 이탈 직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탈 5년 이후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증가는 당시 최저임금 수준의 급격한 상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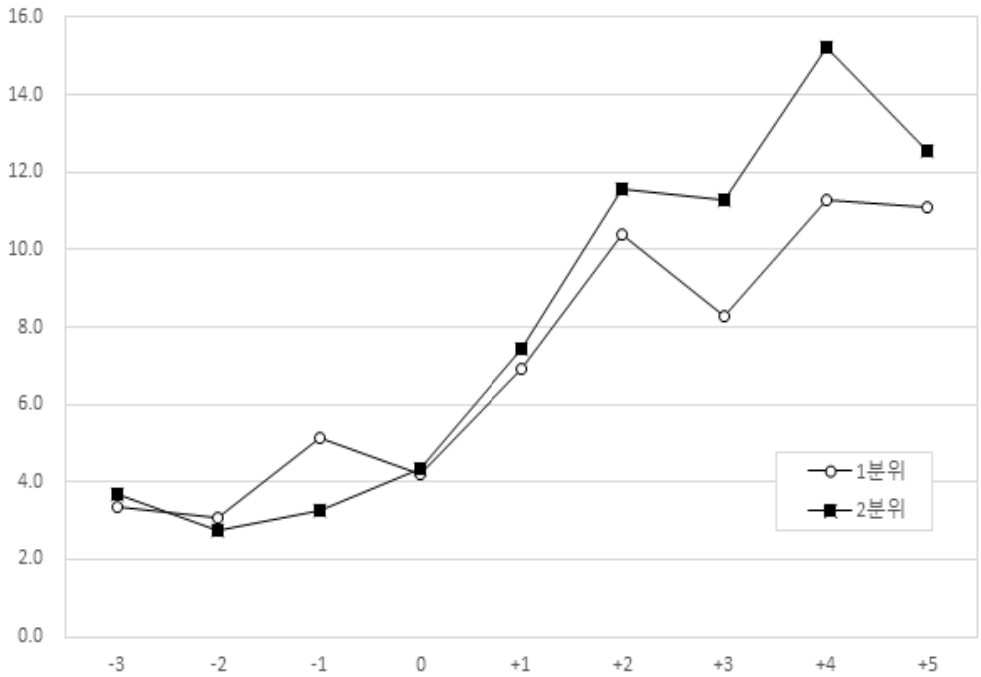
<표 5>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이탈 2년전	이탈 1년전	이탈 시점	이탈 1년후	이탈 2년후	이탈 3년후	이탈 4년후	이탈 5년후	이탈 6년후
미만 근로자	17.7	9.7	21.7	19.9	29.9	28.5	28.6	39.0	40.9
이상 근로자	82.3	90.3	78.3	80.1	70.1	71.5	71.4	61.0	5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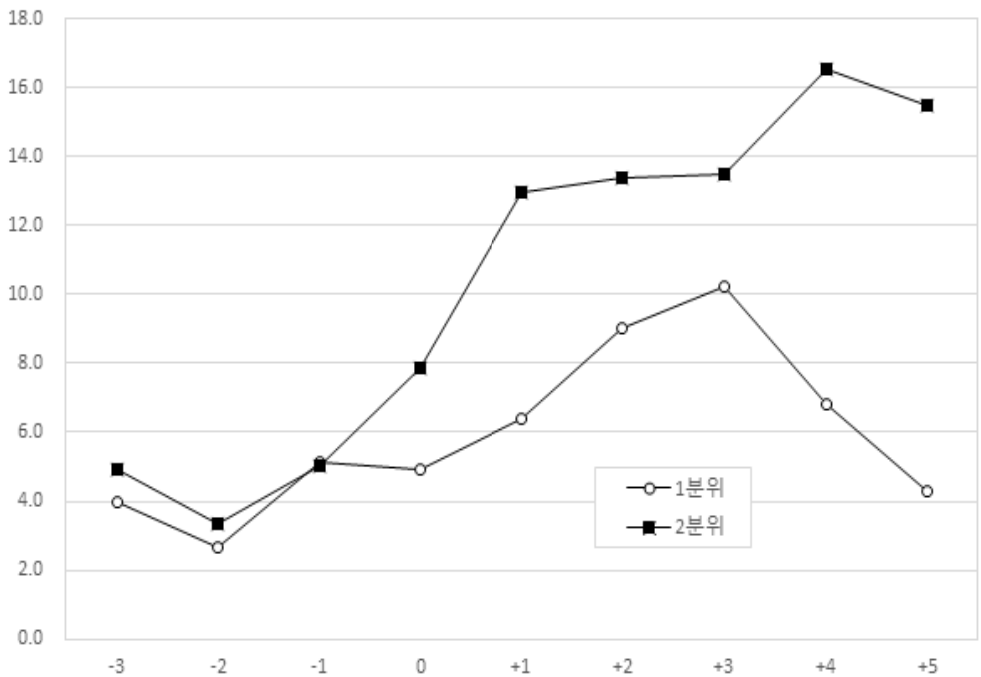
[그림 5]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그림 6] 소득 1분위와 2분위 비율 : 총소득기준



[그림 7] 소득 1분위와 2분위 비율 : 경상소득기준



이들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이탈가구가 소득 2분위 이하에 속하는 비율이 주된 일자리 이탈과 함께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총소득과 경상소득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던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상소득의 경우 이탈가구가 1분위 속하는 비율이 이탈 4년 후에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2. 빈곤 동학

소득분배 상태의 악화는 가구의 빈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탈가구가 소득 10분위 가운데 하위 1분위와 2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은 이탈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표 8>과 <표 9>는 주된 일자리 이탈 가구원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이탈가구와 비이탈가구가 각각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비율, 즉 빈곤률을 각각 총소득과 경상소득을 사용하여 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8]과 [그림 9]는 이들을 각각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들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이탈가구의 빈곤률이 이탈과 더불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의 이탈가구 빈곤률은 4.1%에 불과하였으나, 이탈과 더불어 빈곤률은 8.3%로 급등하며 이탈 4년 후 18.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비이탈가구의 빈곤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비이탈 가구의 빈곤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던 이탈가구의 빈곤률은 이탈 1년 후부터 더 높아지게 된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탈가구의 빈곤률 역시 이탈 직전의 4.5%에서 이탈과 함께 9.4%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이후에도 이탈가구의 빈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탈 4년 후 18.7%를 기록한다. 이로 인해 비이탈가구 빈곤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이탈가구 빈곤률은 이탈 1년 후부터 비이탈 가구의 빈곤률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이며, 이탈 3년 후가 되면 비이탈가구 빈곤률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 한 지 5년 후가 되면 이탈가구의 빈곤률은 하락하여 비이탈가구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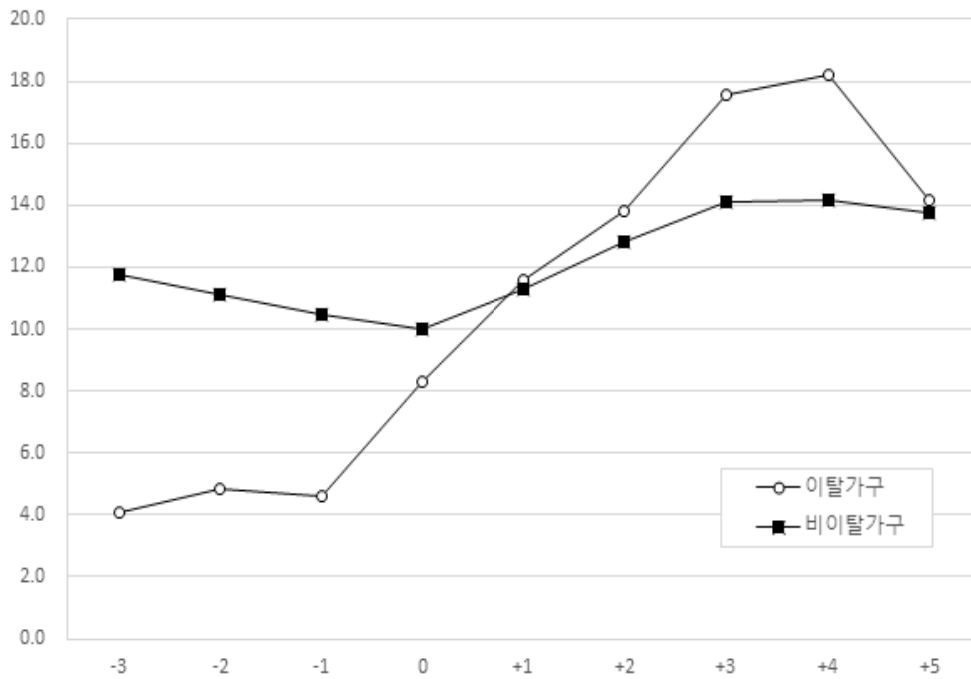
<표 8> 빈곤률 : 총소득 기준

	이탈 3년전	이탈 2년전	이탈 1년전	이탈 시점	이탈 1년후	이탈 2년후	이탈 3년후	이탈 4년후	이탈 5년후
이탈가구	4.1	4.8	4.6	8.3	11.6	13.8	17.6	18.2	14.2
비이탈가구	11.7	11.1	10.5	10.0	11.3	12.8	14.1	14.1	13.8
전체	11.6	11.0	10.4	10.0	11.3	12.8	14.2	14.2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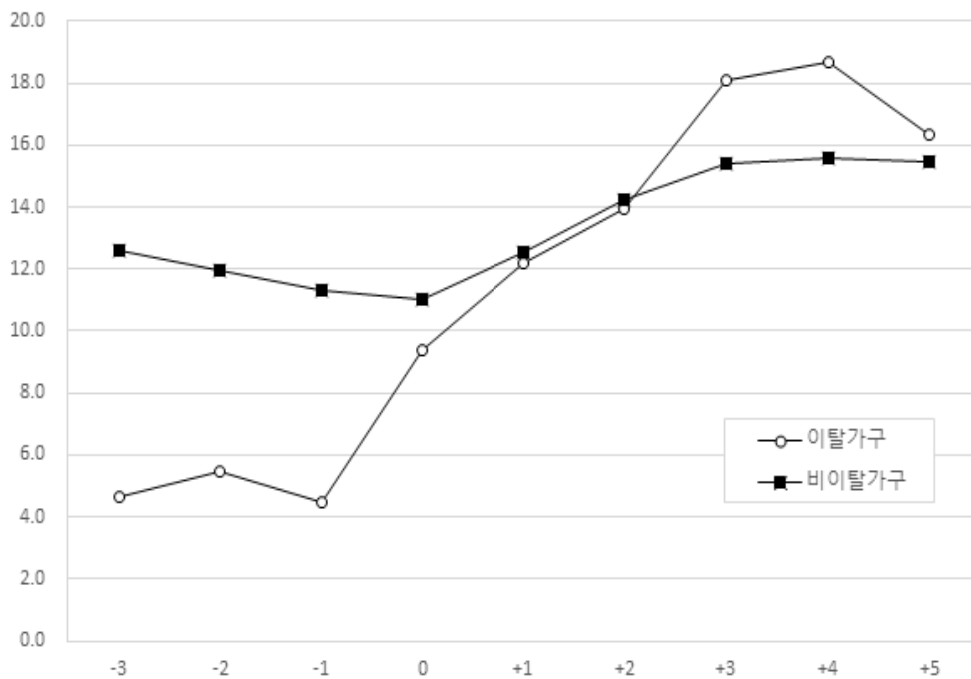
<표 9> 빈곤률 : 경상소득 기준

빈곤률	이탈 3년전	이탈 2년전	이탈 1년전	이탈 시점	이탈 1년후	이탈 2년후	이탈 3년후	이탈 4년후	이탈 5년후
이탈가구	4.6	5.5	4.5	9.4	12.2	13.9	18.1	18.7	16.4
비이탈가구	12.6	12.0	11.3	11.0	12.5	14.2	15.4	15.6	15.5
전체	12.5	11.9	11.2	11.0	12.5	14.2	15.5	15.6	15.5

[그림 8] 빈곤률 : 총소득 기준



[그림 9] 빈곤률 : 경상소득 기준



V. 결 론

본고는 고령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교 가능한 국가들 가운데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강한 상태에서 고령화 또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년퇴직이 아니라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최근의 현상은 주된 일자리와 이로 부터 이탈 과정 및 이탈 이후 이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한다.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이탈이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향후 훨씬 더 많은 이탈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개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일자리 및 주된 일자리 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통계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경상조사뿐만 아니라 매년 5월에 실시되는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면 주된 일자리 이탈에 대한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표본의 지속적인 교체와 동일한 개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의 제한적인 제공 등과 같은 문제는 코호트 분석을 비롯한 극히 한정적인 분석만 가능케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조사는 패널조사로서 동일한 개체에 대해 매년 반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이 가능하다. 1998년의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 24차 조사까지 완료되었고 2021년 현재 23차 조사 자료까지 가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조사 결과들은 이 조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실제 2015년 실시된 장년 부가조사 자료를 당해 경상조사 및 이웃한 경상조사 자료들과 결합하면 KLIPS는 본고가 분석하고자 하는 바를 대부분 충족시킨다.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에 대해 추적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라 해당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이탈 직전 90%를 상회하던 취업자 비율은 이탈과 더불어 60% 남짓한 수준으로 하락하며 이탈 1년 후가 되면 25% 아래로 하락한다. 이후 취업자 비율은 다시 높아지지만 이탈한 지 6년이 지나도 50%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비경황 비율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이탈 연도에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가 이후 하락하여 5년이 지나면 5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취업자 비율과 비경황 비율은 거의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취업상태에서 이탈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양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크게 악화되고 있었다. 종사상의 지위로 보면 50%에 이르던 상용직의 비율이 이탈과 함께 40% 남짓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이탈 3년 후 30%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근로의 형태로 살펴보면, 정규직 비율이 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에서 65%에 가까웠으나 이탈 1년 후 50% 아래로 하락하며 이탈 5년 후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이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로시간은 주된 일자리 이탈 1년 전에 상당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탈 2년 후에는

이탈 1년 후보다 근로시간이 더 증가한다. 그러나 이탈 3년 후부터 근로시간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탈 2년 후 48시간에서 이탈 6년 후 42시간으로 하락한다.

임금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고용의 질 악화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이탈 직전 10%에 못 미치던 수준에서 이탈과 더불어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이탈 6년 후 40%를 넘어서고 있다.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속한 가구를 식별하여 이를 이웃한 KLIPS 경상조사 자료들과 결합하면 이탈자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총소득과 경상소득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던 간에 주된 일자리 이탈과 더불어 소득 10분위 가운데 하위 1분위와 2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급증한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1~2분위 소득에 속하는 비율은 이탈과 더불어 상승하며 이탈 3년 후까지 크게 높아진다. 경상소득의 경우 동일 기간에서 이 비율은 마찬가지로 높아진다. 다만 이탈 4년 후 이 비율은 하락한다.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소득분배 상태의 악화는 빈곤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실제로 이탈 가구원이 있는 이탈가구의 빈곤률은 이탈 가구원이 없는 비이탈 가구의 경우에 비해 이탈 이전에 매우 낮았으나 이탈 이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탈 5년 후에 이르면 비이탈 가구의 빈곤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한다.

결국 주된 일자리 이탈자는 이탈에 따라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열악한 상태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탈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 악화로 직결되고 있었다. 소득 2분위 이하에 속하는 비율이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라 크게 높아지고 빈곤률 역시 급격히 상승하였다.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생애에 걸친 소득 스무딩(smoothing)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 이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탈 이후 노동시장에 새로운 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된 일자리 이탈과 이에 따른 급작스러운 변화는 주로 이연임금계약과 임금의 강한 연공성이라는 고속성장 시대에 구축된 제도가 저성장 고령화로 요약되는 현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금의 유연화를 대가로 추가적인 고용을 얻을 수 있다면 시대와 제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남재량(2020a),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근로소득 격차 연구」,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김태완 외) 제6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20b), 「주된 일자리 이탈과 그 동학(dynamics)」,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성 변화와 정책과제』 (남재량·김동배) 제3장,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9),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특성 분석 및 고용 정책」,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이윤경 외) 제5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